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향 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 비평능력 신장을 위한  
대화 중심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윤 희

# 미술 비평능력 신장을 위한 대화 중심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김 향 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윤 희

# 인 준 서

박윤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미술비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패러다임에 적합한 미술비평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패러다임이 변화해 감에 따라 고정된 가치라는 측면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 가공해가는 과정에서,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시각이미지에 대한 비평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미술비평능력 신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화 중심의 미술비평 수업을 주제를 선정했으며, 대화 중심 미술비평 수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미술비평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미술비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미술비평가의 기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미술 비평가들의 역할과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앞서 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 적합한 미술비평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듀이의 비평적 탐구에서 발전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관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비평에서의 대화교육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미술비평에서의 대화법의 역할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대화법의 의미, 미술 비평에서의 대화법의 역할 및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관점에서 대화수업의 의의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미술비평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논의되었던 미술비평수업의 실제 적용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술비평과정을 계획하여, 효과적인 비평교육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2
3. 연구의 한계점 .....	5
<b>II. 미술비평의 이론적 고찰</b> .....	7
1. 미술비평의 패러다임 .....	7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	7
2. 미술비평의 이론적 고찰 .....	13
1) 펠드먼의 미술비평 .....	13
2)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	17
3) 해석학적 미술비평 .....	22
<b>III. 미술비평과 미술비평교육의 이해</b> .....	27
1. 미술비평의 이해 .....	27
1) 미술비평의 개념 .....	27
2) 미술사속의 미술비평가 .....	29
2. 교육으로서의 미술비평 .....	33
1) 미술비평 교육의 역사 .....	33
2) 교육적 미술비평 .....	38
<b>IV. 미술비평교육에서 대화법의 역할과 발전 방향</b> .....	41
1. 대화의 해석 .....	41
2. 미술비평에서 대화의 역할 .....	42
1) 비평적 탐구의 대화학습의 의의 .....	43
2) 해석학적 대화학습의 의의 .....	44

3. 미술비평 수업의 발전 방향 .....	45
1) 개인의 반응과 판단력 .....	46
2) 비평과 해석의 다양한 관점 수용 .....	46
3) 대화 중심의 토론식 수업 .....	46
4) 자기 주도적, 학생 중심의 학습 .....	47
5) 비평수업과 표현매체의 통합 .....	47
4. 미술비평에서 교사의 역할 .....	47
<b>V. 대화 중심 미술비평 수업 방안 .....</b>	<b>50</b>
1.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내용 구성 .....	50
1) 작품선정 .....	50
2) 학습 방식 .....	54
2.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의 과정 설계 .....	56
3.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모형 .....	61
1) 주제 선정 및 내용 .....	61
2) 수업지도 차시 계획 .....	63
3) 본시 교수·학습 계획안 .....	65
4) 유인물 .....	76
3.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분석 및 유의점 .....	81
<b>VI. 결론 .....</b>	<b>83</b>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펠드먼의 비평실행 단계별 주요 활동 요소 .....	15
<표-2> 탐구단계와 비평적 탐구단계 .....	18
<표-3> 대화 중심 미술비평 과정 .....	56
<표-4>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지도 차시 계획 .....	63
<표-5> 1차시 수업계획서 .....	65
<표-6> 2차시 수업계획서 .....	69
<표-7> 3차시 수업계획서 .....	73
<표-8> 1차시 활동지 .....	76
<표-9> 2차시 활동지-1 .....	77
<표-10> 2차시 활동지-2 .....	78
<표-11> 3차시 활동지-1 .....	79
<표-12> 3차시 활동지-2 .....	80

## 도 판 목 차

<도판-1> 김두량의 <삼살개>, 샤갈의 <나의 마을> .....	51
<도판-2> 김홍도의 <춤>, 마티즈의 <춤> .....	51
<도판-3> 백남준의 <로봇가족>, 니키 드 생팔 <미의 세 여인> .....	52
<도판-4> 코카콜라 광고와 워홀의 <세 개의 코카콜라병> .....	53
<도판-5> 인물이 들어간 포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	5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미학적 이데올로기는 20세기 변화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포스트모던의 사회로의 이양되고 있다.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 고정된 가치는 힘을 잃어가고, 다양한 시각매체가 발달에 따른 정보량의 한계는 없어 보인다. 삶 속의 가치판단 능력과 현실에 대한 비평능력의 형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그 구현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시각문화발달로 인하여 개개인이 접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성에 강조를 둔 전통적인 과거미술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표현매체와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은 향유(소비)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일반 대중이 미술을 소비하는 주체로 서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술비평 활동은 삶을 올바른 판단으로 향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감상자로 하여금 미술 문화의 감상을 통하여 인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올바른 문화 인식 능력과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원화된 시대에 수용자가 어떻게 문화를 읽을 것인가?’ 의 문제에 미술 비평은 그 방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느 시대의 비평이든 그것은 당시 미학적 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맞는 이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한 미술비평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는, 감상자들이 그 미술작품을 대하였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정보만을 얻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작품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스스로의 배경 및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창의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미술비평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미술비평에 대한 고찰, 미술비평 교육의 역사, 대화법을 통한 미술비평교육의 수행,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수업모형구상의 측면에서 알아본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미술비평의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는, 미술비평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미술비평의 방식 및 해석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이 자본화되면서 개개인의 해석을 중시했던 모더니즘에서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미술, 언어,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사회 문화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이동해 왔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실질적인 미술비평의 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배경을 만들고자 한다. 고찰은 크게 게히건(George Geahigan)의 비평적 탐구와, 해석

학적 미술비평의 두 가지 측면이다.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미술비평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미술비평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배경 아래 모더니즘적 미술감상교육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교육적인 미술비평이다. 듀이(John Dewey)로 대표되는 이 이론은, 실용주의와 경험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으며, 미술비평 방식에 있어 인본주의와 인간 삶의 경험과 의미와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작품의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후 게히건에 의해 비평적 탐구로 발전되었다. 게히건이 제안한 비평적 탐구는 기존의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펠드먼(E. B. Feldman)의 양식과 같은 형식적 비평과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평적 탐구는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모더니즘적 비평에서는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주가 되지만, 비평적 탐구에서는 탐색과 발견이 더 주가 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목적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로, 펠드먼의 미술비평 양식에서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한편, 비평적 탐구는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순서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들간의 관계에 있어 유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세 번째로 비평적 탐구는 작품의 비평에 관한 전문화된 지식과 배경 정보를 확실히 연구하는 시도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탐구는 공동체의 노력이 수반된다. 펠드먼의 양식은 학생들이 사고를 전환하거나 의견을 묻는 등 공동으로 연구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반면, 비평적 탐구는 공동의 이해가 수반된다.

해석학적 미술비평에서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인간을 세계 내 존재로 규정한 것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다음의 세 가지에 영향을 받았다. 먼저 존재의 지평은 곧 시간이라는

하이데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선입견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되기도 한 선구조에 대해 연구했다. 선입견은 그 개념 자체가 계몽주의 전통이 가장 오해한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선입견이 다시 복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인데, 해석학적 순환의 문제 역시 과거와 현재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견해와 달리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사이를 대화의 관계로 규정한다. 대화적 관계를 통해 타자를 인정하면서 나의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교사는 교사의 지식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입견을 벗어나는 활동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다머는 예술작품의 의미를 창작자와 공유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인 미술비평 교육의 역사에서는 서양의 미술비평 교육에 관련된 부분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서양의 경우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과 관념론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미술비평으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이후 일반인들의 감상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비평에 대한 비중이 5차 미술 교육과정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6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NAEA등을 통해 비평의 개념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다. 이후 7차 교육과정을 지나 2007년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급별 구분을 통해 성취할 목표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의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미술비평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최근까지 대부분의 미술 비평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업 방식인 대화법의 의미와, 대화법이 미술비평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및

미술비평 수업의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법을 통한 미술비평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화 안에서 타인과 주체의 구분에서 벗어나 이해의 공동체인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에고(ego)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의 효과를 기반으로, 이를 미술비평에 적용시켜 작품감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비평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는데, 미술비평 수업은 직관적 읽기 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화와 토론 단계, 그림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에 대한 조사와 같은 형태로 이어 나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수업을 수행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려해 본다.

###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한계로는, 첫 번째로 저서,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기반에 의한 문헌 연구가 바탕이 되어 진행되는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과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수업시수가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 이론에서 나온 이상적인 비평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대화를 통해 비평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현재의 수업시수에서는 학생들의 비평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Ⅱ. 미술비평의 이론적 고찰

### 1. 미술비평의 패러다임

####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새로운 미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시대의식을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사회와 미술교육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고찰 해 봄으로써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배경을 만들고자 한다.

#### ①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근대성(Modernity)’이란 용어로 지칭된다. ‘moder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모도(modo)에서 유래하며 ‘지금’, ‘방금’ 혹은 ‘오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modern’은 서구 현대를 주도해온 사상적 흐름인 계몽주의적 전통 또는 이성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1)</sup> 모더니즘은 전통에 대한 변혁과 새로운 이데올로기 등장이 시발점이었다. 창조에 대한 긍정적인 강조는 모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창의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모더니즘 미술은 집합적 감수성보다

---

1) Osborne, H.(1981), The Oxford Companion to 20th Century Art,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미술연구소 역(2001). 『옥스퍼드 20세기 미술사전』, 서울: 시공사

는 개인적 개성을 대변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미술 평론가 아트킨스(Atkins)는 미술사적으로 ‘modernism’을 크게 1860년대부터 1970년까지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미술사에 있어서 모더니즘 미술은 시기상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인상주의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후기인상주의를 거쳐 진행 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의 ‘모방’ 내지는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르네상스 이래의 원근법적 회화의 세계를 점차 무너뜨리고 평면성으로 향해간다. 이것이 추상(abstract)미술과 오브제(object) 회화라는 새로운 형식을 등장 시켰고, 더 나아가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단순화시켜 회화가 사물화 되는 경향을 낳았던 미니멀아트까지 이르게 되며 이러한 제 현상들은 ‘모더니즘 미술’이라 칭한다고 설명한다. 이 당시 서구의 상황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고, 미술에 있어서도 사진기의 발명과 튜브물감의 보급은 미술 전반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3)</sup> 미술은 독립된 개인의 경험과 감각이었고, 작품 그 자체의 내적 구성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한 얼마나 디자인과 조형요소, 원리가 의도된 대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가가 평가의 기준이었다. 즉 미술은 의미 있는 형식의 존재 여부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미술 그 자체에 집중하였다.

모더니즘 미술은 미학적 수단들을 통해서 미의 창조와 의미심장함을 통해 타락하고 미의식이 결여된 대중문화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모더니즘과 근대미술(modern art)은 예술에서 작가의 독창성과 소유권(ownership)을 중시하며 기능보다는 형식주의적이며 심미적인 예술을 위한 예술(for the sake of art)을 강조한다.<sup>4)</sup> 모더니즘의 ‘형식주의’ 미술비

2)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2007), 『삶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pp.18-19

3) 강성원 (2008), 「미술의 개념 확장에 의한 미술교육의 실제적 접근과 교육과정 탐색」, 성균관대 대학원. pp.23-24

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Greenberg)는 소위 순수미술 또는 고급미술은 대중문화의 천함과 타락에 저항하여 고급 취향, 고상한 이상,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학적 형식의 요새라고 주장하였다.<sup>5)</sup>

그린버그는 사회와 거리를 두고 미술의 순수성을 추구해 나가는 형식주의 미학으로서의 모더니즘 미술교육의 등장은 사실 ‘산업화 이래로 민주화된 문화 아래서 미학적 수준의 저하와 위협으로부터 그 질을 지키려는 계속된 노력’이라 정의 하였다. 이런 사회적 가치와 요구의 변화와 결과에 따른 교육 방법과 내용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sup>6)</sup>

모더니즘에서 비평교육은 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에서 출발하였다. DBAE는 브루너(Bruner)의 ‘지식의 구조’를 바탕으로 1960년대 바칸에 의해 비평, 제작, 미술사, 미학의 네 영역 발표되었다. DBAE는 학문위주의 교육으로 미술교육학자들은 기존의 실기 위주의 미술교육과 병행하여 미술 이론과 미술계의 이해, 근현대 미술작품 감상을 포함하는 미술교육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sup>7)</sup> DBAE는 이전의 미술교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미술의 경험 의미를 대신하여 미술을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동안의 미술교육에서 다소 경시되었던 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미술 교과 위상이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DBAE가 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육내용 선정의 적합성과 효율적 전달 방법에 초점을 두면서 지식이 정보로 대치되고 학습자를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하게 하는 폐해를 낳기도 하였으며 학습 반응의 개인차와 다양한 가능성, 미술교육의 통합적 성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sup>8)</sup> 또한 미술비평 수업은 단지 강의가 그 주된 수업으로 이루어

4) 고은실 (2008), 「현대 한국 미술비평교육의 내용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2집. p.90

5)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전게서. pp.18-19

6) 백영주 (2008),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18

7) 고은실, 전게서. p.87

8) 박민정 (2005).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교육과정 논의의 쟁점」, 교육과정연구, 23권 4호. p.37

지고, 교사는 단지 단편적인 미술사와 미술작가의 에피소드, 조형적 특성에 국한되어 더 이상의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모더니즘은 사회문화의 변화와 함께 기술(technology)의 발달과 미술문화의 발달로 큰 변화를 초래하여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절대적 사상이었던 서구의 문화와 예술의 우월성, 그리고 사고를 지배해온 보편적 진리,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엄격한 구분, 예술 각 장르 간의 폐쇄성에 대한 반동과 함께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 ②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처음 강조되어 사용된 것은 피들러(Leslie Fiedler)와 핫산(Ihab Hassan)등과 같은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 초기 및 중엽에 접어들면서 건축 및 각 예술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촉발된 포스트모더니즘은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유럽에 전파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구사회의 지식인들 간에 매우 폭넓게 수용되어졌다.<sup>10)</sup>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시대, 소비사회의 새로운 특징들을 대변하고 정당화하는 시대사조로써 지향하고 있는 경향 자체가 불확정성, 상대성, 다원성과 같고 제한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개인이 그들의 집단적인 사회적 가치, 관습, 제도, 그리고 행위를 모호하게 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부정할 수 없다고

---

9) 강성원, 전계서. p.28

10) 강성원, 전계서. p.12

본다. 전통은 의사소통과 집단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을 제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의 모든 의미는 사회적 구성 틀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들은 의견의 교환을 통한 집단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이 다시 그 중심을 차지한다.<sup>11)</sup> 모더니즘의 일원적 사고와 개인을 중심으로 단일한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포괄 하고 있다. 미술작품을 사회 문화적 맥락 없이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미술가의 자율적인 표현에 의존했던 모더니즘의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인 미술과 언어, 문화, 사회와 상호관계의 영향을 더욱 더 강조한다.

현대미술에는 이러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함께 보이며 최근의 현대미술세계에서는, 작가들이 만든 이미지들이 관객들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적용되어진다. 즉 현대의 예술가들은 예술과 삶, 작가와 관객들과의 밀접한 교섭을 시도하며, 미술의 기능을 ‘인간의 삶을 위한 미술작품’으로 보고 있다.<sup>12)</sup> 미술은 사회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철학과 연관되고 현대미술의 의미와 국제미술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우라(aura)를 포함한 역사, 문학, 팝과 대중 이미지, 정치, 경제와 일상생활과 기호를 이해해야만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은 자본주의화 된 미술계와 미술시장과 함께 국제화와 다문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경험을 접하는 관객과 함께 대화와 의사소통의 전달이 필수적이므로 미술교육 또한 이러한 현대미술과 미술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함께 변화해야한다.<sup>13)</sup>

---

11)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전게서, pp.18-19

12) 고은실, 전게서. p.90

13) Garber, E. (1995). Teaching art in the context of culture: A study in the borderlands. *Studies in Art Education: A Journal of Issues and Research*, 36(4). 218-232. 고은실, 전게서 재인용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배경아래 모더니즘적 미술감상교육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교육적인 미술비평(Educational art criticism)이론이다. 이 이론은 현대의 과학과 기술문명과 함께 나타난 국제화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현상.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화되고 다문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듀이의 실용주의와 경험주의에 기초해서 생겨났다. 이를 주장한 학자들은 듀이와 아이즈너(Elliot Eisner)와 톰 앤더슨(Tom Anderson)이다.

이들은 미술과 미술비평의 본질이 인본주의와 인간 삶의 경험과 의미와 가치판단에 있다는 전제 하에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경험과 언어를 이용해 교육시키는 것이 미술비평이라고 밝혔다. 듀이(1934)는 “미술비평의 목적은 미술작품에 대한 사고의 재교육이다”라고 하였고, 아이즈너(1998)는 “비평의 기본적 기능은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톰 앤더슨(Anderson & Milbrandt)은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말하고 쓰는 과정을 통해 인간존재와 삶의 본질과 문화와 사회의 상황과 문제들을 작품에서 발견하고, 분석, 이해, 설명,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포스트모던 교육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던 교육과정은 이성과 감성을 연결시키며,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세상을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로 간주한다. 또한 특수성과 보편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단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인과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현상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에 있다. 교육의 역할은 그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삶을 재해석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견해 가는데 있다.<sup>15)</sup>

---

14) 고은실, 전계서. p.88

## 2. 미술비평의 이론적 고찰

### 1) 펠드먼의 미술비평

학문중심 미술교육(DBAE)은 비평학습의 모델을 위하여 미학자나 전문 비평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리하여 많은 미술교육자들은 자신의 비평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미학자들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이들 미학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이론가들은 미술비평의 진술유형을 설정하였는데, 묘사-해석-평가라는 단계로 형식화된 아이스너(E.W.Eisner)의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 펠드먼의 모델이다.<sup>16)</sup>

펠드먼은 그의 저서 『시각적 경험의 다양성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 Art as Image and Idea』(1967)을 통해 단계적 비평을 통한 감상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이 모델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많은 교사들에 의해 미술 감상학습의 모델로 이용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개발된 감상 양식들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모태 역할을 하였다.<sup>17)</sup>

펠드먼의 미술비평은 기술, 분석, 해석, 평가로 4단계로 나누어진다.

#### 1단계 : 기술(Description)

기술은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감상은 무엇보다도 ‘보는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즉,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의 인

---

15) 박민정, 전계서. p.40

16) 박휘락 (2007),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주)시공사 시공아트. p.47

17) 김창식 (1999),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논총. 제 7집. p.174

18) 박휘락 (2007), 상계서. p.210

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결론이나 평가,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은 보류한 채 작품을 관찰한 후에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조형 요소와 원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비평에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이유는, 결론을 조금씩 내리려고 서두르는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무심코 흘러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보고 있는 대상을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sup>19)</sup> 관찰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작업으로, 읽은 것을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은 비평에 있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이는 시각적이고 혹은 촉각적인 상징을 언어 기호로 바꾸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2단계 : 분석(analysis)

작품에서 나타나는 선, 형상, 색상과 채색의 질 등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는 단계로 조형요소들이 어떤 원리들을 동원하여 작품을 조직하고 형식을 창조해내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해석과 판단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각적인 조형적 특질을 따져보는 과정이다.<sup>20)</sup>

## 3단계 : 해석(interpretation)

이제까지 기술과 분석 단계에서 해석을 위하여 탐구하고 모은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에 대하여 나름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해석 단계에서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미적 대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관련짓는 활동으로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고

19) 김향미 (1998). 「미술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제9집. p.65

20) 박휘락 (2007), 전계서. p.211

21) 박휘락 (2007), 전계서. p.211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가치전환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석에 관한 이런 관점은 작품의 의미가 작품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내재적 미학에 근거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작품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기 나름의 자료를 찾고 모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해내는 등의 학습활동을 하는 가운데 탐구방법도 알게 되며 하나의 예술작품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sup>22)</sup>

#### 4단계 : 평가(evaluation)

평가는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을 결정하고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서 그 작품에 등급을 매기고 선택하며, 작품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를 내리는 단계이다. 이전 단계에서 밝혀진 작품의 현상과 내용들을 근거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또한 미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들로서 주제, 기법, 양식들은 작가, 사회, 그리고 문화와 시대를 표출한 상징적 의미 내지 가치로서 인식하며, 이를 내면화하는 일이 중시된다.<sup>23)</sup>

다음의 <표-1>은 앞서 살펴본 펠드먼의 비평실행에 따른 단계별 주요 활동요소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24)</sup>

<표-1> 펠드먼의 비평실행 단계별 주요 활동 요소

단계	펠드먼 주장
1. 기술 (Description)	·작품에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 충실 ·의견 차를 최소화 할 용어 사용 ·인지 체계를 이루는 시각적 요소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의

22) 백주영 (2008),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p.59-60

23) 박휘락 (2007), 전계서. p.212

24) 김지연 (2004). 「펠드먼의 미술비평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p.12

	<p>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식이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됨을 인식</li> </ul>
2. 분석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들의 상호 작용 관계 분석(기술단계가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반해 분석단계는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li> <li>· 색과 선의 종류와 관계에 대해 반응</li> </ul>
3. 해석 (Interpre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li> <li>· 비평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li> <li>· 설명, 분석을 근거로 자신의 느낌과 미학적 특질을 기술</li> <li>·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설득해 나가는 과정</li> </ul>
4. 평가 (혹은 판단)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서열 정하기</li> <li>· 평가의 명백한 기준과 근거 제시</li> <li>· 객관적이고 잠정적인 평가</li> <li>· 작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묻기</li> <li>· 차후에 인정받게 될 미적 가치의 예측</li> </ul>

펠드먼의 비평양식은 현재 많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비평양식의 기본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미술비평 교육에 기초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구성이 가진 문제점과 현대 미술의 비구상 작품에 대한 비평의 곤란함 등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펠드먼의 비평양식이 문제제기를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주의 미학을 도입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형식적 요소들만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 점이다. 즉, 예술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도상(iconography)과 상징(symbolism)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주의자들에게는 오직 디자인 요소와 법칙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통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조형적 요소의 관점에서 보편적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평의 다양성, 감상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25)</sup>

둘째, 기술단계에서 감상자가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객관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느낌, 생각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 감상의 주체자로서 학생의 능동적인 감상 행위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재구성 되고 성장하는 개인의 미적 안목의 발달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직선적인 단계적 순서를 밟음으로써 획일적이며 비순환적인 사고 과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펠드먼의 비평단계는 작품 감상의 총체성이나 연속성을 무시하고 비평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분절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모든 작품에 대한 일률적인 감상 절차는 탐구활동 중심의 유연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 경직되고 고착된 절차나 형식에 치중한 방식으로 인해 탐구 태도 육성보다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주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26)</sup>

## 2) 개히건의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탐구”라는 개념은 그 유형에 비해 상당히 많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스트라이브(Streib)에 따르면, 비평적 사고에 대한 첫 번째 국면은 사고와 탐구를 개념화시킨 듀이로부터 시작된다.<sup>27)</sup> 기본적으로 듀이의 탐구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탐구라는 개념이 논리적인 사고와 밀접히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김지연 (2004), 전제서 . p.13

26) 박휘락 (2007), 전제서. pp.255-257

27) 이재영 (2009), 「탐구중심 미술교육: 비평적 사고와 비평적 교수법」, 미술과교육 Vol.10-2. pp.59-60

듀이에 따르면 “탐구란 애매 불명료한 상황을 명료한 상황으로 변형시키는 작용”<sup>28)</sup>이라 하였으며, 미술을 “정해져 있는 원칙이 아닌 서로 다른 관계들을 뒷받침하고 입증하는 기능이자 결과”<sup>29)</sup>로 보았다. 게히건은 듀이의 탐구이론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비평적 탐구를 제시하였다. 듀이의 탐구단계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단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탐구단계와 비평적 탐구단계<sup>30)</sup>

탐구 과정	탐구 단계 - 존 듀이	비평적 탐구 단계 - 게히건
1	문제 인식 상황 (탐구의 선행조건)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인식. 비평자가 작품(또는 작품의 부분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작품이 갖는 장점이거나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비평적 탐구의 초기적 조건).
2	문제를 명확히 한다.	비평자가 작품의 장점이거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이해 부족을 깨닫게 된다.
3	문제에 대한 해결의 대안들이 떠오른다.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비평자에게 떠오른다.;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들이 형성된다.
4	탐구자가 가설에 대한 결과들을 추론한다.	비평자는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들의 결과를 추론한다.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설들은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하거나 또는 작품들이 만들어진 맥락 혹은 작가에 대한 어떤

28) 김희영 (2008),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p.65

29)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A Perigee Book. p.322

30) 박휘락 (2007), 전개서. p.236

		<p>사실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p> <p>가치에 대한 가설들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요구하거나 그 방식이 감상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한다.</p>
5	수집된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설에 의해 예측되었던 것들을 검증한다.	의미에 대한 가설들이 작품의 세밀한 관찰(scrutiny)을 통해, 그리고 작가나 작품 제작의 관련 맥락에 대한 배경적 정보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6	탐구의 결론들이 또 다른 문제들의 해결에 적용, 또는 응용된다.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결론들을 다른 작품의 의미와 가치 결정에 적용된다.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에 의한 감상학습은 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탐구과정으로서의 감상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는 미술 비평 수업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맞는 교육적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미술감상 수업에 근간이 되고 있는 모더니즘의 철학적 수용을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적 관점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미술비평 모델은 펠드먼의 미술비평이다. 이는 DBAE의 수용 이후 가장 보편적인 미술비평 방법으로 알려지고 쓰이고 있다. 그의 미술비평 방법은 서술, 분석, 해석, 평가를 수직적,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반면, 게히건은 모더니즘적 비평단계를 비판하며 유기적인 과정의 순환으로 인하여 어떤 과정 중에도 피드백이 가능한 비평적 탐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현 미술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펠드먼의 미술비평은 형식주의 비평으로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히건

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비교하여 그 분명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1)</sup>

첫 번째는 토대주의에서 오류항존주의<sup>32)</sup>로의 이동이다. 모더니스트 탐구 프로그램의 핵심은 절대적인 지식기반의 추구이며 철학자 존 듀이는 이를 “확실성의 추구”라고 불렀다. 지식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추구하였다. 반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자명한 사고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개념, 무엇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이 가능하다는 개념, 혹은 지식이 고정된 토대에 기초한다는 개념을 부정한다. 그들은 모든 지식에 대한 주장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수동적 관찰자로서의 지식 추구에서 능동적 탐구자로서의 지식 추구자로의 변화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다음 이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 세계를 향해 보편성을 형성하는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방관자적 견해’와 인간 정신을 ‘텅 빈 상태’로 비유하는 것을 거부한다.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언제나 능동적인 탐구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지각작용은 배경지식과 보는 이의 관심사에 의해 축적되어 형성된다. 지식 추구는 문제나 수수께끼에 직면할 때 창의적인 가설을 통해 이를 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가설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테스트 된다.

세 번째, 고립된 지식인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탐구자로의 변화이다. 모더니스트는 지식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지식을 일단의 탐구자들이 제시하는 판단이라고 간주한다. 동일한 연구집단 내의 다른 조사자에 의해 용인되지 않은 지식주장은

---

31) 조지 케히건, 최옥희 옮김 (2001), 「미술비평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교육 Vol.2. pp.162-164

32) 오류항존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항존주의 반대되는 의미로 실용주의와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다. 실용주의는 객관적 불변의 본질을 부정하고 인간은 자유의지에서 본질을 만들어간다.

늘 의심의 대상이 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의견을 일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답(대화)을 통해 호소한다.

넷째,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이론에서 배경(전후관계)에 대한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모더니스트는 철학과 과학을 전후관계가 없고 시간, 장소, 전통 등과 같은 상세한 사항과 유린된 탐구의 형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최종의 결과는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의 논술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이론이 될 뿐이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철학과 과학을 포함한 모든 탐구의 형태는 배경적 요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탐구의 전통에서 생겨났고 또 접해 있는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지적 노력에는 숨겨진 의제가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가 출현하는 전후의 배경적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상, 시각, 전통 등의 단일화에서 다원화로의 이동이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지적인 노력을 호감을 받은 특정 형식의 사고나 조사에만 몰아넣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철학에서는 논리적 경험주의가 강조되었고 전반적으로 대륙 철학이 무시되고 실용주의가 강조되었다. 미학과 미술비평에서는 하나의 이론적 신조어로서, 형식주의가 대단히 강조되었다. 형식주의란 미적인 관심사를 미술작품이 지닌 감각적 요소들과 그 상호관계만 국한시키는 학설이다. 이런 경향의 결과로서, 인간경험 중 많은 부분이 비-지적이거나 탐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양상의 하나는 다양한 사고와 시각, 전통 등을 포용했다는 데 있다.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학습이 형식주의와는 다른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 자서전적, 맥락적 정보는 작품의 이해를 분명하게 한다.
- 작품에 대한 절대적이며 정확한 이해는 없다. 비평적 실천에는 미학적 이해와 의도적 이해가 혼합되어 있다.
- 감상자의 인지와 이해는 그 사람의 배경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작품에 대한 이해는 감상자마다 다양할 수 있으며 작품은 작가가 인식하지 못한 생각과 원리를 예시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비평적 실체에 있어 타당한 부분이다. 감상자는 미술작품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추구한다.

게히건은 미술교육학자들이 모더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미술비평철학을 미술교육에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 3) 해석학적 미술비평

‘해석학(Hermeneutics)’이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神)들 중인 하나인 헤르메스(Hermes)로부터 유래하였다. 헤르메스는 다른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었다. 그런데 신들이 헤르메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항상 전달한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신들은 헤르메스에게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이 경우 헤르메스는 모호한 메시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명확히 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헤르메스는 인간 이해의 폭을 넘어서서 있는 메시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해석해 내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

33) George Geahigan and Wolff, "Art Criticism and Art Edu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pp.172-173

한 해석 과정에서 헤르메스가 신들의 메시지를 왜곡시켜 전달할 때도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크라틸로스(Cratylus)에서 말했듯이, 헤르메스는 전령(messenger)이기도 혹은 해석가(interpreter)이기도 혹은 거짓말쟁이(liar)이기도 하였다. 헤르메스의 이러한 다중적인 내면의 모습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외형을 지닌 아들 판(Pan)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헤르메스를 더 이상 못 믿게 된 상황에서 이제 해석 활동의 몫은 인간의 품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해석 활동의 영역은 비단 신의 메시지나 성서의 차원을 떠나 법률, 문학, 철학 인류학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sup>34)</sup>

해석하는 이해의 학문으로 ‘이해’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해’와 ‘지식’의 구분을 통하여 해석학에 의미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굿맨(Goodman) & 엘진(Elgin)은 양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지식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확고한 진리로부터 출발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재세계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근거(출발점)은 확실하고 목표는 영원한 절대적인 선험적 진리이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역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해하려는 노력은 통합하고 조직하고 제거하고 보충하기 위해 현재 채택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이미 완성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새로운 사례에 적합하고 그것을 함께 다루는 어떤 것을 구성하는 것이다.<sup>35)</sup>

34) 미학대계간행회 (2007),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pp.885-886

35) Bauersfeld, H. (1995). The structuring of the structures: Development and function of mathematizing as a social practice. Steffe L. p. & Gale. J. Constructivism in Educ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43 이정은 (2003). 「해석학적 대화 학습을 통한 현대 미술의 감상교육 방향」, 대구대학교. 재인용 p.5

굿맨과 엘진이 정의하듯 ‘지식’은 절대적 진리를 밝히는 목표를 향한 작용이고, ‘이해’는 탐구를 통한 인지과정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해석활동을 존재론적 관점으로 해석 주체에 비중을 두었다. 해석은 작품 본래의 의미나 가치를 탐색하여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자의 의도나 태도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탐구 주체인 현존재의 실존에 대한 선이해를 가여야 한다. 올바른 해석적 순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존론적 해석학의 탐구 주체인 현존재를 토대로 올바른 선이해가 수행되어야 한다.<sup>36)</sup> 하이데거는 해석자가 텍스트와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선이해를 수정하게 되며 그렇게 수정된 선이해는 또 다시 텍스트의 해석을 이어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세계 내 존재로 규정한 것에 힌트를 얻어 가다머는 선이해 개념과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다.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다음의 세 가지에 영향을 받았다.<sup>37)</sup>

첫째, 존재의 지평은 곧 시간이라는 하이데거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가다머의 ‘이해의 역사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둘째, 이해의 ‘선구조’이다. 이 요소는 ‘선입견’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된다. 가다머가 선입견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 개념이 계몽주의 전통이 가장 오해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의 복권을 주장하며 또한 건전한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해석학적 순환의 개념이다. 해석학적 순환의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는 현재에 의해 의미가 항상

---

36) 이정은, 전게서. p.7

37) 김종문 등 (1998), 『구성주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p.17

변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인 것이다. 가다머는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인 현 존재의 해석학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주관-객관 사이의 순환성을 획득하는데 미흡했다고 보고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사이를 대화적 관계로 규정한다.<sup>38)</sup>

가다머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내 존재인 것처럼 언제나 이미 언어 안에 살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언어적 존재이며, 언어가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다. 언어는 세계 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인간은 언어로 대화한다.<sup>39)</sup> 여기서 대화란 타자를 인정하면서 나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동시에 타자 역시 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서로 인정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므로 변증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해는 이전의 선입견(先入見 : 자기 성장 환경이 된 문화전통에 따라 일어난 이해로서 편견 또는 선이해와 같은 뜻)을 길잡이로 하여 대화의 놀이 안에서 서로의 지평(선입견에 의해 펼쳐지는 이해의 세계)들이 뒤섞이는 지평혼융(地坪混融)<sup>40)</sup> 을 거쳐 새로운 이해로 되는 그런 이해이다. 새로운 이해는 다시 선입견이 되어 이해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지적 삶을 구성하는 대화의 길잡이로 된다. 모든 교육은 교사의 지식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선입견을 한 단계씩 벗어나는 대화의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41)</sup>

대화를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들이 한 주제에 관해 공유된 이해를 갖게

38) 박정호 외 (1996). 『현대철학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 동녘. pp.56-58

39) H-G. Gadamer, *Philosophical Hermeneutics*, Translated by D.E.Ling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7). p.62

40) 지평혼융은 지평(地坪: 대지의 편평한 면)과 혼융(混融: 섞이어 융화됨.)의 합성어이다. 지평은 어떤 사상이 활동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리킨다. 가다머의 경우에 텍스트의 고유한 지평과 해석자의 고유한 지평이 영향사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지평이 창출된다. 그에게는 이것이 곧 해석학의 과업이다.

41) 김종문, 강희명 (1999), 「도덕과 열린교육을 위한 대화학습과 수업실제」, 대구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p.10

될 경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는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아니라 문제가 된 주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타낸다.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중에 서로 대립되는 견해나 가정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자신의 견해나 가정들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sup>42)</sup>

예술에서 이해란 일차적으로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우리가 예술작품과 우리의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한다는 뜻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의미 해석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예술작품의 감상자는 단순히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의 내용을 구성해나간다. 따라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그것의 관점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작품이 지닌 의미와 진리에 함께 참여한다. 가다머가 예술작품의 의미는 창작자와 감상자가 공유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역사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예술적 체험도 우리의 상황과 의미의 개개를 포함한다.<sup>43)</sup>

---

42) 신백경 (2008). 「초등 미술교과에서 해석학적 접근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감상 지도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2집 1호. p.317

43) 이정은, 전계서. p.11

### Ⅲ. 미술비평과 미술비평교육의 이해

#### 1. 미술비평의 이해

##### 1) 미술비평의 개념

두산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비평(批評)은 "사물의 미추(美醜) · 선악 · 장단(長短)등을 들추어내어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로 설명되어 있다. 비평 독:kritik, 불:critique, 영:criticism 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포프(Alexander Pope)의 『비평론Essay on Criticism』이라고 하지만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Krinein으로 '분할', '구분', '결정하다', '식별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라틴어의 Criticus는 'a judge'와 같은 용어로 '재판관', '감정가', '심사원'이란 뜻인데, '판단하다 to judge', '가치를 평가하다 to evaluate', '분석하다 to analysis', '감상하다 to appreciate', '결점을 찾다 to fault-finding', '칭찬하다 to praise', '종류를 나누다 to classify', '비교하다 to compare' 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sup>44)</sup> 즉, 미술비평은 미술작품 향수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말하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하며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미술교육학자 박휘락은 미술비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감상과 미술비평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감상은 가치 지향적이며, 예술작품을 향수<sup>45)</sup>하고 의미와 가치를 음미하며 이를 자기 내면화하는 수

44) 박휘락, 진게서. p.56

45) 향수는 완전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대상에 우리의 모두를 바친다. 미적 향수는 대상과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없는 소위 '무관심성(無關心性)'을 특색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관람자가 예술작품에 "빠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몰입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홍기태 (1999),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감상과 비평」, 미술교육논총 제7집, p.233

용적 활동이다. 반면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과 의미 해석, 가치판단적이며, 외타적인 지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비평 활동은 ‘해석’과 ‘판단’활동 속에서 ‘언어’를 매개체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감상은 반드시 언어를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비평은 예술가와 그의 창작품을 해설하여 대중이 보다 용이하게 예술작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득하는 것이며, 그 직접적인 도구는 ‘언어’이다. 미술비평은 구어체든 문어체든 ‘대화’를 매개로 예술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며, 이해하는 활동이다. 그리하여 공감과 공명으로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활동이다.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형성에 대한 각성의 경지로 나아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비평을 하는 학생은 미술작품의 미적 특질을 감수, 이해하고 나아가 ‘보는 눈’의 개발, 즉 미적 지각력의 발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교육철학자인 브로디(Harry Broudy)에 의하면 비평은 ‘각성된 찬사 enlightened cherishing’의 결과물이다. ‘각성된 찬사’는 이성과 감성을 별개로 이분하지 않고 동시에 인정함을 뜻한다.<sup>46)</sup> 즉, 비평 활동에서 객관적인 사료인 미술사, 예술이론의 결과물 뿐 아니라 주체적인 미적 직관과 감각 그리고 가치판단을 포함 할 수 있다. 콜먼(Coleman)은 비평을 ‘이미지들과 언어의 교차’로 정의한다.<sup>47)</sup> 그가 말하길 “나는 모든 종류의 사진 이미지를 그저 가까이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불러일으킨 느낌과 생각과 이해에 딱 맞는 단어를 공략한다.”<sup>48)</sup>라고 하였다. 미술작품의 이야기를 내면화하고 잠재적인 모호성을 언어로 의미화 시키는 작업을 중요시한다.

46) 테리 바렛 지음, 이태호 옮김 (2004), 『미술비평:그림 읽는 즐거움』, 아트북스. p.54

47) 테리 바렛 지음, 이태호 옮김, 상계서. p.50

48) Coleman. 『Because It Feels So Good』, 테리 바렛 지음, 이태호 옮김, 전계서. p.204. 재인용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감상의 단계를 넘어 작품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최종으로 주체적인 가치 판단의 일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적 고찰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자율적인 과정인 것이다. 또한 미술비평의 활동은 대화와 토론, 언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2) 미술사속의 미술비평가

미술교육을 위한 비평양식 고안을 위해서는 전문 비평가들의 방식을 빌려오는 것이 효과적이며, 비평가의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본다.

미술비평은 미술에 관한 담화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미학적 활동이다. 다양한 비평가들의 관심사와 미학이론들을 바탕으로 미술비평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비평가들은 전문적이든 아니든,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해 왔다. 첫째, 이것이 무엇인가? 둘째,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셋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넷째, 이것의 가치는 무엇인가?<sup>49)</sup> 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미술의 가치를 논의하였다. 미술비평가들은 미술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나름의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논의의 구조를 만들어간다. 또한, 미술비평가는 예술 향수의 경험을 글로 바꾸어 독자들에게 흥미와 정보를 전달한다.<sup>50)</sup> 미술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경험과 분석을 통하여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언어화를 하는 것이다.

---

49)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전게서. p.132

50) 테리 바렛 지음, 이태호 옮김, 전게서. p.7

시대에 따라 비평가들의 역할에 따라 미술은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음은 테리 바렛의 저서에서 기술된 시대별 미술비평가의 사상과 역할을 요약하였다.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74)는 르네상스 시대의 비평가이며, 미술사의 아버지로 불린다. 바사리는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이전의 작품보다 뛰어난 것 이므로, 이들의 작품을 이상으로 삼아 다른 작품들을 평가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념은 모방이었고, 바사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완벽함의 재현 그 자체로 보았다. 바사리는 사람들이 미술가들이 만든 것을 감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판단 기준은 훈련된 눈과 기법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였다.

**디니 디드로**(Denis Diderot, 1718~84)는 근대 미술비평의 개척자로 인정받고 있다. 미술비평가로서 그는 개인적인 관점을 명확히 표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 디드로는 미술작품에 대한 그의 판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한편 자신의 시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미술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고 주장하며, 작품에 관한 독단이나 절대주의적 입장을 피하면서 자신의 관점에 이성적 융통성을 유지했다. 디드로도 바사리처럼 눈은 잘 볼 수 있게 교육돼야 하며 감식력의 계발은 관찰과 체험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67)는 자신의 글이 “강렬하고 이념적이며 당파적인”성격을 띤 글이기를 바랐다.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4~94)는 추상표현주의를 조망하고 세상에 알린 비평가다. 당시 로버트 마더웰, 헬렌 프랑켄텔러, 로버트 루이스 등을 조명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형식주의 미술비평가로 회화는 착시효과, 주제, 예술가의 감성, 이야기 등 회화를 진정한 회화의 형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고 하였다. 1947년, 데이비드 스미스의 유작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된 그린버그는 미완성인 스미스의 몇 조각작품에서 칠을 벗겨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나아 보이는군.” 1962년 모리스 루이스가 타계한 후 그는 화면에 있는 선 몇 개를 지우고 루이스의 남은 회화 몇 점을 ‘완성’했다. 이것은 비평가와 미술가, 미술작품과의 상호 관계를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다.

**로런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1926~89)는 팝아트에 관한 선구적인 저작으로, 팝아트란 용어를 1950년대 후반에 만든 비평가이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로버트 라우셴버그, 제임스 로젠키스트, 워홀, 클레스 올덴버그, 짐 다인, 재스퍼 존스 등의 작품을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인정한 사람이다. 미술을 일상의 삶과 분리하고 상승시키려 했던 그린버그와는 달리 알로웨이는 미술과 사회의 만남에 주력한 인물이었다. “나는 미술이 문화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로웨이는 미술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미술을 한정하는 그린버그의 추상미술 개념을 거부했다. 그는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지적 긴장과 관람자의 해석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었다. 작가의 사회적 배경, 작가가 가진 이념적 원천 그리고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개념적 진전을 고려하였다. 또한, “관객의 임무는 예술가의 손을 떠난 작품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알로웨이는 미술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은 유연해야 한다. 그것이 한 가지 수단, 절대 표준만으로 독단적인 공언을 내리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작품을 심사할 경우 알로웨이가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은, 미술작품이 가진 소통의 힘이었다.

**힐턴 크레이머**(Hilton Kramer, 1928~ )는 모더니즘적 비평가로 알려져 있다. 세계 명작 편람은 종종 서구 작품들에 비중을 두고 다른 문화권의 작품들은 평가 절하한다. 천재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술가 개인이 만든 작품들과 그것이 다른 미술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오늘날 많은 작업들은 심미안에 전적으로 기반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미술비평가들은 당시 사회와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과 미적 신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품과 미술가들을 분석 조명하였다. 시대적으로 미적 가치가 변화하기도 하고, 미술가의 역할 또한 변화하는 정점에서 미술비평가의 중요한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돕스(Dobbs)는 미술비평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51)</sup>

- 미술비평가들은 한 작품의 시각적, 촉각적 특질과 기타 다른 특질들이 지닌 미적 의미와 그 외 다른 의미들을 위해 어떻게 연결되어 작용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미술적 지각력을 신장시킨다.
- 미술비평가는 이미 기술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한 작가의 미술 작품과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주어진 미술적 전통내의 다른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 작가의 미술적 특질에 대하여 추론적 평가를 내린다.

51) 이은적 (2003), 「미술과에서의 비평능력」, 한국조형교육학회 제22집. p.201

- 미술비평가는 다양한 미술적 계획을 감상하고 평가하기 위한 논리적 정당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미술에 대해 생각하는 지적 환경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특히 우리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
- 미술비평가는 미술 작품들이 전달하는 다층적 의미 수준과 중요성 정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우리가 미술의 다중적인 가치들을 감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듯 돕스는 미술비평가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보여주었다. 비평가는 미술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미술작품에 포함된 다양한 방향들을 해석하며 미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예술 작품에 대해 지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작품의 특성을 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사람에게 표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2. 교육으로서의 미술비평

### 1) 미술비평 교육의 역사

#### ① 서양

미술비평의 시작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과 관념론 등으로 미술작품의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미술의 도덕적 목적과 좀 더 높은 이상을 일반화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학자 바사리(Ciorgio Vasari) 와 18세기 빙켈만(Johann Jochim Winckelmann)

은 미술품에 대한 분석과 미술사 저술로 미술비평의 맥을 만들었다.

이후 19세기에는 미술비평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화가 도래되었다. 공예품의 대량생산 체계 속에 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여 숙련된 장인의 수는 줄어들었고, 디자인은 크게 저하되었다. 1851년 런던 세계박람회의 개최로 인하여 저하된 미의식으로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이 대두되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미적인 질 저하를 회복시키기 위해 러스킨(John Ruskin)은 전통공예를 부흥시키고자 하였고, 미의식과 기술력을 높이려 하였다. 더 나아가 러스킨은 국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을 비판하고 전 국민에 대한 일반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는 『존 러스킨의 작품들 The Works of John Ruskin』 14, 15권 1903-1912에서 일반인들의 감상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52)</sup>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반응(감상)하는 데에는 ‘지각’과 ‘창안’의 두 양상이 관여한다고 했다. 창안의 힘은 신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으며 아주 소수만이 소유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각(감상)은 교육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미술교육의 기능은 물질적 우주에서 신이 만든 작품의 아름다움을 각 개인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sup>53)</sup>

러스킨은 미술작품을 향유하는 수용자의 미적 지각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시각적 조형매체 창출에 전념하면서 이를 이해하고 향유(소비)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필요하였다. 즉, 일반 대중이 미술

---

52) 박휘락, 전게서. p.42

53) John Ruskin, The Elements of Drawing(New York: Dover, 1857[1971]), 박휘락, 전게서 재인용

을 소비하는 주체로 서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Picture Study Movement는 미술비평 교육에 변화를 주었다. 이 운동은 미에 대한 학생들의 감성 개발과 인격의 형성 및 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미술품을 접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 하였으나 차츰 강의를 통한 감상교육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0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미국 교육사조로 군림했던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사조 중 특히 미술 교육에 주된 영향을 끼친 것은 사회적 효율성 운동(Social Efficiency Movement), 어린이 중심운동(Child-centered Movement) 그리고 사회 재건운동(Social Reconstruction Movement)이었다. 1920년대부터 자아표현으로서의 미술교육 이념이 대두되었지만, 국제 사회의 많은 변화에 창조적 자아표현이라는 미술교육 방법은 교육과정내에서의 지적 구조의 취약성, 단원과 학년간의 연관성 부족, 미적교육내용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54)</sup>

이후 1960년대 미술교육에서 미적 경험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미적교육운동(Aesthetic Education Movement)이 이루어졌다. 1964년 Penn State Seminar에서 바칸(Bakan)의 논문을 주제로 하여 미술사가, 미술 비평가, 미술가의 탐구 방식을 모델로 하는 미술교육 연구가 시행되었다.

바칸은 소위 ‘스푸트니크 쇼크<sup>55)</sup> Sputnik shock’(1957) 이후 브르너의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 1960 이론에 촉발되어 일어난 학문구조 중심 교육개혁에 자극 받아 미술교육에서도 학문의 구조를 구

54) 김창식 (1999), 전계서. pp.174-175

55)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crisis, 스푸트니크 쇼크)은 1957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이 겪은 과학기술·교육부문의 충격.

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56)</sup> 바칸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리어(D. Greer)가 처음 사용하게 된 DBAE는 이후 채프만(Chapman),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DBAE는 이전의 도구주적 미술교육을 비판하며 맥락적으로 미술교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미술비평교육의 가치를 확대하였다.

DBAE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진보주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에서의 탐구(Inquiry)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교육과정에서의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듀이와 마찬가지로 먼로(Tomas Munro)는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존의 비평적 시각의 틀을 깨는 동시에 판에 박힌 암기에 의존하는 미술사 위주의 감상교육과는 다른 비평을 시도하였다.<sup>57)</sup> 이후의 서술, 분석, 해석, 판단으로 이루어진 수직선적 형식주의 미술비평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획은 탐구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반응”에 중점을 두어 미술비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1세기 매체의 발달로 시각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주도하고 있던 모더니티 이데올로기는 포스트모던 사회, 다원주의적 사회, 후기 자본의 사회, 정보 산업 사회로 이전되었다. 과학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로 이어지고 배타적 양상이 힘을 잃어가는 다원적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삶 속의 가치판단 능력 향상을 더욱 요구하고 있으며, 미술비평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

56) 박휘락, 전게서. p.45

57) 김창식, 전게서. pp.175-177

## ②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제5차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1987-1992)에서 감상 영역의 평가 내용으로 ‘감상 영역은 단순한 개념적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적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작품의 해석, 비평 능력 등에 비중을 두되, 정의적 태도도 아울러 평가한다.’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과 교육의 동향’이라는 항목 아래 NAEA(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가 미술과 내용 영역으로 제시한 창작,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의 4분야에 대한 설명 중 미술비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비평의 개념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술비평은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 작품을 선택하고 가치 판단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활동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감상영역을 미술비평과 미술사로 구성하고 있다. 미술비평은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 줌으로써 미적 감수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로 설정되어 있다.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감상 영역에서 ‘인지적인 접근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와 같이 교수 ·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가 학교 급별 구분 없이 총괄 목표로만 제시되었던 것과 반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할 목표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중학교 목표를 보면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고등학교 목표를 보면 ‘미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한다.’로 나타나 있다. 감상영역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미술작품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가치를 판단해 ‘미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미술비평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급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감상지도 방법상의 미숙과 표현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비평수업이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비평 수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

## 2) 교육적 미술비평

예술작품을 비평하는데 거론되는 중요한 개념은 해석과 가치평가이다. 예술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sup>58)</sup> 작품의 의미 발견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첫째로 작품에서 단순히 발견되는 것을 기술하는 것과, 둘째로 해석자가 무엇인가를 투사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장 스타로빈스키(Jean Starobinski)는 자신의 비평방법을 분석하면서, 비평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기계적이고 자동기술적인 방법도 아니며, 또한 직관에 의한 시행착오를 통한 방법,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의 비평 방법을 “자발적인 감정이입, 객관적인 연구와 자유로운 사고, 이 세 요소가 조합되는 것으로, 그럼으로써 비평에서 즉각적으로 수용되는 분명함, 학문적인 진실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기술한다.<sup>59)</sup>

58) 미학대계간행회, 전게서. p.199

59) 이은적 (2001), 「미술 비평과 감상 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12-1, p.225

비평은 사회적, 문화적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할 수 없고, 비평가의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배제하는 비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오병남<sup>60)</sup>에 의하면 “비평은 고조적인 판결이 아니라 가설이거나 실제로 가설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술을 비평한다는 것은 독특한 연구와 창조의 작업이다. 아무도 같은 작품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문화로 작품에 접근하고 각자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이다.”라고 뒤샹이 말했듯이 관객과, 응시되는 작품 사이에는 교육, 가치판단의 근거, 문화 등과 같은 많은 망들이 얽혀 있는 것이다.<sup>61)</sup>

스톨니치는 일반적으로 예술비평가가 수행해야 할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62)</sup> 첫째, 비평은 우리들의 미적 지각을 좀 더 차별화시켜 줌으로써 미적 경험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평은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때 향수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작품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비평은 구체적으로 감각적인 예술 작품이 가진 매력이나 광채, 형식의 섬세함, 또는 형식적 구조가 작품을 통일시키는 방식, 상징의 의미, 전체 작품의 표현적 정서 등에 주목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셋째, 비평은 또한 우리들에게 작품의 미적 의도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러한 미적 의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주며, 넷째로 비평은 감상을 저해하는 편견과 혼동을 없애 줌으로써 미적 ‘공감’을 계발시켜 준다. 다섯째 예술비평은 예술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신념들을 설명해줌으로써 우리들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그 사회 내지 인간이 갖고 있는 시대정신이나 인간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60) 오병남 (1991). 『미학과 비평철학』.이론과 실천. p.478

61) 이은적, 전계서. p.225

62) 박휘락, 전계서. p.62

해주는 등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을 필요로 하는 현 시대에 감상자는 경험의 과정을 비판적이며 탐구적으로 직면하여야 한다. 미술비평 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술비평을 통한 학습과정에서는 미술사와 미술용어, 미술작가, 다양한 조형요소와 원리, 미술 재료 및 기법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치를 판단하고 타당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술교과에서 비평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생활 속의 미술작품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탐구하게 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고 능력을 기르므로 인하여 삶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직면할 때에 주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며, 더 나아가 의미의 확장 또는 내면의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미술비평교육에서 대화법의 역할과 발전 방향

### 1. 대화법의 해석

사전적 의미에서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로 정의 내리고 있다. 둘 이상의 인간의 만남에서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나와 타인, 타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삶은 엄청난 가능성으로 열린다. 인간 본연의 삶이 대화라면, 대화는 삶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포함한다. 대화하면서 아동들은 그들의 미래를 여는 삶을 산다. 자기 말이 없고 자기 행동이 없는 물체로 아동들이 전락되는 비극의 근본 계기는 대화의 단절이다. 대화 안에서 타인-주체와 나-주체는 자기 고집으로부터 뛰어나와 이해의 공동체인 ‘우리’로 된다. 대화 안에서 너와 나는 자기주장을 자기 소유물로 주장하는 이기적 에고(ego)의 벽을 부수고 뛰어나와 자기주장을 버리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며 동의를 얻기도 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하며 서로에게 활기찬 삶을 연다. 대화의 목적은 결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선에 있다.<sup>63)</sup>

가다머가 생각하는 대화는 앎을 확인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대상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앎의 경험에 이르게 하는 대화이다. 가다머의 대화를 실현하는 일은 창조로서의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나의 지평과 너의 지평을 융합하는데 있다. 이해는 삶의 근본적인 존재 양식이며, 그 이해를 추구하는 삶의 실천적 방식이 바로 대화이다. 선입견의 전통이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새

---

63) 김종문, 강희명, 전계서. p.3

로운 의미가 창출하게 된다. 대화는 자신을 뛰어넘어 타자를 전제할 때 가능하며, 대화의 과정에서 참된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언제나 상호작용적인 활동과 조절을 포함하고,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교류를 포함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합의하고 실천하는 창조적 활동을 포함한다.<sup>64)</sup>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미술 감상 수업에서 활용되는 대화법은 감상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대화는 단순히 이해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해석능력과 사고능력의 확장을 이끌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미술 비평 수업에서 대화를 통해 개개인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추후 학생들의 표현능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다.

## 2. 미술비평에서 대화의 역할

교육적 맥락에서의 대화의 의미는 어원적으로 교수적 대화(instructional conversation)로 표현되고,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교수적’ 대화라는 어원으로부터 대화는 학습을 증진시키는 활동이어야 한다. 교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교수적’ (수업적) 요소에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성화 하고, 잘 모르는 관련 기능이나 개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좀 더 복잡한 언어와 표현을 촉진하며, 학생들이 특정 결론이나 입장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교수적 ‘대화’는 지금까지 교사중심의 일방적 강의중심 수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이해를 강조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의미한다. ‘대

---

64) 신백경, 전계서. p.318

화'적 요소에는 하나 이상의 정답 또는 상이한 대답이 가능한 질문, 학생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반응, 상호작용적이고 연속적 순서에 의한 토론의 유지, 도전적이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학습 분위기 조성, 교사에 의해 누가, 언제 말할지를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 참여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화법이 대화하는 기술 즉,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면, 대화수업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가운데, 개인의 의견일치인 이해와 공동의 의견일치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미술비평 수업에서 대화법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술작품에 대한 비평의식의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론에서 살펴본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미술비평에 대한 대화 학습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비평적 탐구의 대화학습의 의의

비평적 탐구의 대화학습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활동의 측면이 확장된다.

기존의 비평적 담화와는 달리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탐구라는 것은 '불확정적인 상황을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sup>65)</sup>'이다. 이와 같이,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반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에서 미술작품을 비평하고, 나아가 개인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

65) Richard J. Bernstein, John Dewey, 정순복 옮김(1995), 『존 듀이 철학 입문』, 서울: 예전사. p.143

둘째, 토론학습을 통해 다른 반응들에 대한 습득이 가능하다. 개개인별로 연구하고 이해한 개념을 뛰어넘어, 토론 수업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미술비평 수업을 진행할 경우, 스스로의 반응뿐 만이 아닌 다른 학습자의 반응 및 생각을 수렴, 스스로의 의견으로 취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확장된 개념의 습득이 가능하다.

셋째, 비평적 탐구에서는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평적 탐구에서는 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었던 개념들을 더욱 확장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한 단계인 묘사, 분석, 해석, 평가 및 판단의 단순화된 개념에서 확장되어 학습자들의 동기를 더욱 유발할 수 있는 교수 용어를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라는 유형에서 학생들을 자극했을 때, 평가 및 판단의 관점에서 ‘비교’를 사용할 수도 있고, 특성화의 관점에서 ‘비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비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추가로 학생들의 어떤 비평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예견도 가능하다. 즉, 학습자의 실제 비평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교사는 미리 예측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지도를 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해석학적 대화학습의 의의

해석학적 대화학습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이다.

해석학적 대화학습에 의하면, 단순한 정보제공, 또는 해석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뛰어넘어 학습 대상자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이를 반

영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낯설음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어 든다. 즉 스스로의 생각 및 사고에 입각한 미술작품대응이 가능하다.

둘째, 자기 주도적 비평능력의 향상이다.

과거에서부터 진리나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가변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나가는 주체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술 비평에서도, 과거의 비평 또는 평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은 의미가 없으며, 학습자 스스로의 지식 및 배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술작품을 대함으로서, 자신의 선이해를 구조화하고,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감상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다.

미술비평의 궁극적 목적은, 미술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을 하고, 작품을 통해 미적 가치를 탐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미적 체험은, 단순히 특정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적 체험을 통해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이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대화학습을 그 도구로서 이용하고, 이를 통한 미적 체험의 극대화를 이끌어낸다.

### 3. 미술비평 수업의 발전 방향

미술교과의 성격으로 의사소통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미술이 표현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석학적 교수·학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대화를 통해서 각자

의 경험과 삶의 지평을 융합하는 교육철학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 개인의 반응과 판단력

학생 개인의 견해나 반응은 미술감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미술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해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지식 및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비평과 해석의 다양한 관점 수용

미술비평 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 작품에 대해 해석할 때, 학생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서의 미술비평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주관적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3) 대화 중심의 토론식 수업

미술비평 수업이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직관이나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미술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을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스스로의 의견에 대한 객관화를 이룰 수 있고, 다른 견해를 경청하며 작가의 의도와 표현 방법을 간접적

으로 경험하여 자기 경험화 할 수 있다.<sup>66)</sup>

#### 4) 자기 주도적, 학생 중심의 학습

주로 학생 스스로의 주관 및 해석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어 가는 미술 비평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중심이 되어 학습을 하는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교사는 대화법과 같은 방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 5) 비평수업과 표현매체의 통합

비평수업을 통해 신장한 학생들의 사고 및 해석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추후 스스로의 표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평수업을 통해 함양하게 된 해석능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표현욕구 및 의지를 더욱 개발하고, 이를 그림, 만들기 등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미술비평에서 교사의 역할

미술비평 과정에서 교사는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비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대화법을 바탕으로 한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의 대화와 토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대화의

---

66) 윤대환 (2006),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대화를 활용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p.68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sup>67)</sup>

첫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주의 깊게 들어주며, 작품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귀 기울임으로써 더욱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비평활동으로 고무시킬 수 있다.<sup>68)</sup>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비평에 대한 교사의 해석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로부터의 승인으로 인해 비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호응하면서 격려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비평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버릴 것이며, 대화법에 의한 미술비평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비평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는 교사가 미술비평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술비평의 모델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이는 암묵적 교육효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데, 비평을 하는 교사를 롤 모델로 인지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미술비평가의 태도를 고취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비평학습에 임했을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기술적이며 분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문법을 통해, 학생들의 비평에 대한 흥미도를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비평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작품은 수집되고 보관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탐구되고 토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을 작품을 단순한 과제, 혹은 성과로만 치부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

67) 박휘락, 전게서. p.314

주어야 한다. 미술작품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과의 대화를 더욱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교사가 비평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종합적인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비평가로서 가져야 할 지식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심적 내면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언어적 기능을 구사하는 미술비평 활동에 있어서 “개방성”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평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초보적인 비평이든 전문적인 비평가에 의한 비평이든 이를 지도하는 교사에 의한 해석 모두 가치 판단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역시 열려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V. 대화 중심 미술비평 수업 방안

본 연구는 미술비평 향상을 위한 대화 중심교수에 관한 연구로 시각적 언어에 대한 분석 및 비판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설계를 구상하였다. 대화 중심 미술비평 수업의 구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여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와 가드너의 ‘해석학적 비평’의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 1.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내용 구성

#### 1) 작품선정

미술비평수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감상대상이다. 종래에 미술 감상수업은 교사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의 방향으로 흘렀을 뿐 아니라 감상자의 다양한 관점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비평적 탐구를 위한 수업에서는 감상자가 처음 작품을 대면할 때의 직관적인 탐구 의식을 중요시한다. 때문에 작품선정에서 비교가 되는 둘 이상의 작품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감상자의 작품에 대한 흥미와 탐구의 자세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비교되는 작품의 선정 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주제가 있지만 서로 상반된 역사적 배경이나 형식의 비교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 선정이다. 두 점 이상의 서로 상이한 배경이나 형식을 가진 작품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탐구의 자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작품제작 시기의 배경, 나라별 특징, 작가별 사상, 표현의 방법, 사회적 영향관계를 접함으로 인하여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지각하고 인정함으로

써 관점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예) 동양화의 인상과 서양화의 인상 비교

- 김두량의 <삼살개>, 샤갈의 <나의 마을> 비교

	
<p>김두량의 &lt;삼살개&gt;</p>	<p>샤갈의 &lt;나의 마을&gt;</p>

<도판-1> 김두량의 <삼살개>, 샤갈의 <나의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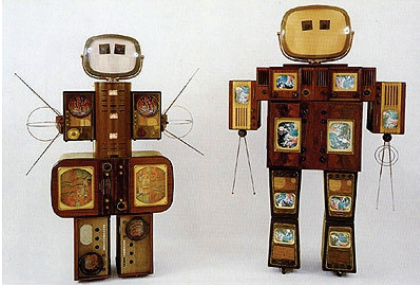

- 김홍도의 <춤>, 마티즈의 <춤> 비교

	
<p>김홍도의 &lt;춤&gt;</p>	<p>마티즈의 &lt;춤&gt;</p>

<도판-2> 김홍도의 <춤>, 마티즈의 <춤>

예) 다양한 매체의 비교

- 백남준의 <로봇가족>, 니키 드 생팔 <미의 세 여인> 비교

	
<p>백남준의 &lt;로봇가족&gt;</p>	<p>니키 드 생팔 &lt;미의 세 여인&gt;</p>

<도판-3> 백남준의 <로봇가족>, 니키 드 생팔 <미의 세 여인>

둘째,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각이미지와 미술작품을 선택 비교한다. 화랑에 걸려 있는 미술작품 만이 아닌 감상자의 삶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접목 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접하게 되었던 시각이미지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하게 됨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또는 더 나아가 비판적인 시각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시각매체와 미술작품 비교

- 코카콜라 광고와 워홀의 <세 개의 코카콜라병> 비교

	
<p>코카콜라 광고</p>	<p>워홀의 &lt;세 개의 코카콜라병&gt;</p>

<도판-4> 코카콜라 광고, 워홀의 <세 개의 코카콜라병>

- 인물이 들어간 포스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비교

	
<p>인물이 들어간 포스터</p>	<p>레오나르도 다빈치 &lt;모나리자&gt;</p>

<도판-5> 인물이 들어간 포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 2) 학습 방식

학습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자극하고 개발하기 위해 학습자 위주의 비평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각이미지를 접하였을 때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과 비판적 시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흥미로운 주제와 적절한 발문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상에서 대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의식을 활발하게 하고 작품과 타인 의견에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개인의 자유로운 발표형식

- 학습자가 다양한 시각이미지를 접하였을 때 정해진 지식보다는 자신의 선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반응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비평수업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탐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방식의 발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 토론형 비평학습

- 토론형 비평학습 방식은 전체적 집단 토론형 방식과 소집단별 토론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토론형은 개인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타인의 의견과 교류하며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런 다양한 이해의 지평아래 자신의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모둠별 탐구형식**

- 미술비평 수업에서 객관적인 작품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비평가의 자료조사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지식과 작품에 대한 사회적 배경,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비평가의 글을 수집 분석한다. 그 이후 모둠별로 서로의 정보들을 상호교류하며 사회적 맥락으로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지식을 넓혀갈 수 있다. 즉, 간접적인 미적경험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자유형식의 비평문 쓰기**

- 비평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정해진 형식과 피상적인 언어적 표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간다. 이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비평학습에 있어 언어적 표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표현매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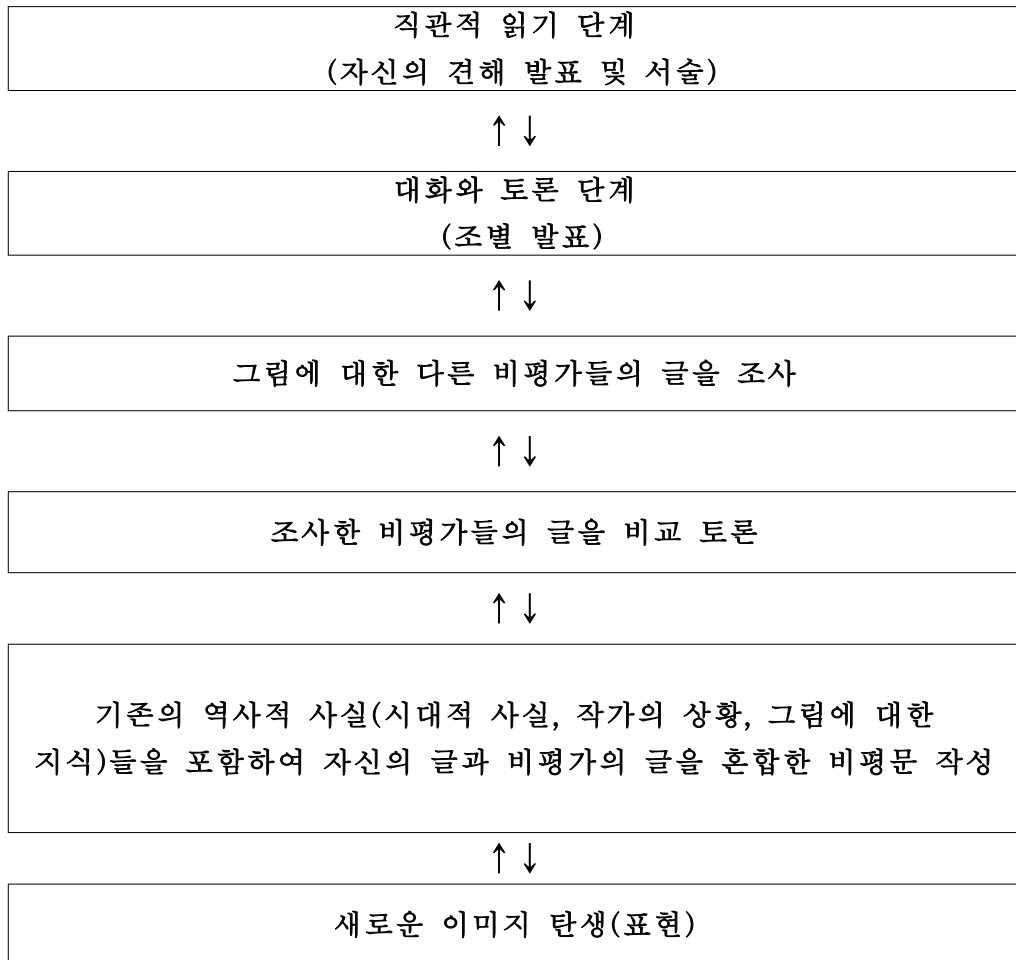
- 비평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감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통합할 수 있다. 비평수업을 통해 함양하게 된 해석능력을 기반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표현욕구 및 의지를 더욱 개발하고 이를 그림, 만들기 등의 다른 매체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 **포트폴리오 만들기**

- 시각이미지와 미술작품 비평수업에서 체계적으로 비평 활동 기록을 통하여 발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차후에 자신의 관점의 변화를 지각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 2.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의 과정 설계

<표-3> 대화 중심 미술비평 과정



### 1) 직관적 읽기 단계

#### - 자신의 견해 발표 및 서술

학습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과 작품과의 첫 만남이다. 학습자는 선이해를 바탕으로 듀이가 말하는 ‘문제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탐구

의 단계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을 처음 대하며 추론을 하게 된다. 직관적인 읽기 단계는 학습자의 선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하고 적극적인 탐구적 태도로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는 없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닫힌 형식의 질문을 피해야 한다. 닫힌 형식이란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정해진 지식의 요구를 말한다. 직관적 읽기의 단계는 열린 방식의 발표 또는 간단한 서술 수업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직관적 읽기의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발문하는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작품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발문을 선택하여야 한다. 발문에는 작품에 보이는 특징과 경험적 인식, 작품에 대한 탐구 의식을 고취시키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교사의 발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 떠올랐나요?
- 보이는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며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 그림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 봅시다.
- 그림에서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 등장인물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그림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해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 그림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 2) 대화와 토론 단계

대화와 토론 단계는 두 가지의 토론형태를 이룰 수 있는데, 이는 전체적 집단 토론학습과 소집단별 토론학습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직관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며 토론한다. 더 나아가 대화와 토론 단계는 그림에서 주는 시각적 기호를 파악해 보는 단계이다. 즉, 작품에서 접해지는 조형요소와 원리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학습자는 같은 작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접합으로서 언어표현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을 접하게 된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이해, 융합하며 비평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토론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는 감상자의 자유로운 비평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진행되는 토론의 내용을 워크시트를 작성한다.

대화와 토론 단계에서 교사의 발문 형식은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발문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작품에서 본 이야기들을 팀별로 이야기해 봅시다.
- 작품을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것들, 색, 형태, 시각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 3) 작품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의 글을 조사

학습자는 제시된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가들의 글과 역사적 배경, 사실들을 모둠별 팀원의 몫을 나누어 조사하는 단계이다. 미술작품이나

삶에서 접하는 시각이미지들은 작가의 관념이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파악하고 인지적인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와 같은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단순히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고,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킨다.

#### 4) 조사한 비평가들의 글을 비교 토론

앞의 단계에서 조사한 비평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 또는 해석을 바탕으로,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한 작품 해석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토론활동을 통해, 학습자 개개인이 이해한 비평가들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취합하여 좀 더 확장된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비평가들의 전문적인 용어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습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언어적 능력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 5) 기존의 역사적 사실(시대적 사실, 작가의 상황, 그림에 대한 지식)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글과 비평가의 글을 혼합한 비평문 작성

앞에서 수행해 왔던 비평가들의 작품에 대한 비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활동을 거치면서 함양하게 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비평문을 작성해 본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스스로 체득

한 정보에 대한 구체화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복습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 6) 새로운 이미지 탄생(표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습득하게 된 작품에 관련된 정보와, 스스로 가지고 있던 지식 또는 배경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취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미술작품을 비평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학습자가 언어적인 능력 향상뿐만이 아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3.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모형

#### 1) 주제 선정 및 내용

##### ① 수업주제 및 수업 목표

- 수업 주제 : 시각매체와 미술작품 비교
- 코카콜라 광고와 워홀의 <세 개의 코카콜라병> 비교

	
<p>코카콜라 광고</p>	<p>워홀의 &lt;세 개의 코카콜라병&gt;</p>

<도판-4> 코카콜라 광고, 워홀의 <세 개의 코카콜라병>

##### • 수업 목표

- 매체에 따른 다양한 전달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 보는 사람에 따른 작품 감상의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도 미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표현을 기초로 맥락적 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고, 이미지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찾아 해석할 수 있다.

- 작품 제작에 따른 표현 기법과 제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수업 개관 및 내용

사진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하여 이미지는 무한한 복제가 가능해 졌고, 현대미술은 유일한 창조물이 아닌 복제 이미지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이미지들의 범람 속에서 대중들의 미의식에 대한 가치와 기준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미술작품들 속에서 올바른 이미지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맥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광고의 이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TV, 영화포스터, 잡지, 상품전단지 등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접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감안 하였을 때 광고의 이미지를 활용한 미술비평 수업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광고 이미지와 함께 현대미술 사조의 한 분야인 팝아트는 지극히 대중적이며,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현대인의 소비심리를 파고든 상업적인 예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앤디워홀(Andy Warhol)은 1960년대부터 코카콜라를 비롯한 상업적인 소재의 이미지를 실크스크린이라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대량 복제하여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코카

콜라라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색다른 매력이었다. 워홀의 실크스크린은 대량생산 방식과 같은 것으로 산업화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팩토리(Factory)’인 ‘공장’으로 부르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강조했다. 그의 이미지는 기계적인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예술 작품을 반복적 생산함으로써 이젤 회화의 전통을 타파하고, 전통적인 예술가의 개념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예술 작품의 고유성에 의문을 가하면서 예술가와 예술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켰다.

생활과 구별 없는 미술을 창조하는 것이 팝아트의 목적이었다면 현재의 미술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여 생활과 관련된 미술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주고 있으므로 팝아트의 작품 감상을 통한 비평적 탐구활동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2) 수업지도 차시 계획

<표-4>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지도 차시 계획

차시	학습단계	학습과제	내용 및 활동	준비물	
				교사	학생
1	학습주제 인식과 작품 직관적 읽기	-주제 인식 -두 도판의 비교 -자신의 견해 서술 및 발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두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작성해 본다.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인상	교사	-PPT자료 -유인물
				학생	-필기도구

			또는 이야기를 발표해 본다.		
2	조사된 비평가의 글을 비교 토론 하고 통합된 새로운 비평문 작성	-조사된 비평가의 글을 비교 토론 -조사된 비평가의 글과 토론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여 통합된 새로운 비평문 작성	-과제로 제시되었던 ‘비평가 글 조사하기’를 바탕으로 조별로 토론 한다. -새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평문을 작성해 본다.	교사	-PPT자료 -유인물
				학생	-필기도구 -비평가의 글(선수 과제)
3	1.2차시때 감상된 작품의 평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제작 및 발표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 제작 및 발표	-기존에 감상된 비평문과 작품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제작 한다. -자신의 작품과 다른 학생의 작품 비교 발표 및 감상한다.	교사	-PPT자료 -유인물
				학생	-각자 작품별 재료 준비 (종이, 붓, 물감 기타) -필기도구

### 3) 본시 교수·학습 계획안

<표-5> 1차시 수업계획서

단원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평	차시	1	시간	50분
학습 주제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교 감상				
학습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를 통한 작품 감상</li> <li>▪ 개인 비평 활동</li> </ul>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광고의 이미지와 미술 작품으로써의 워홀의 작품을 직관적으로 비교 감상한다.</li> </ul>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작품을 비교하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li> <li>2.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다.</li> <li>3. 자유롭게 사고한 감상문을 발표할 수 있다.</li> <li>4. 광고와 예술작품의 개념을 이해한다.</li> </ol>				
학습 자료 및 준비물	교수 매체	빔 프로젝트			
	교사	수업안, ppt, 참고작품, 학습 활동지			
	학생	필기도구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습자	
도입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환경 조성 및 본시 학습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점검, 주의를 환기시킨다.</li> <li>▪ 본시 수업내용 예고 및 목표를 제시한다.</li> <li>▪ 학습방법을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확인</li> <li>-인사</li> <li>▪ 본시 수업내용과 목표 인지</li> </ul>	PPT 자료  유인물 (활동지)

전 개	2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 품 제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이미지 제시</li> <li>· 직관적 감상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두 이미지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li> <li>- 보이는 이미지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li> <li>- 이미지와 관련된 여러 분만의 이야기가 있나요?</li> <li>-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li> </ul> </li> <li>· 자유로운 글쓰기를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보고난 후 생각난 것들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동지에 적어 봅시다.</li> <li>- 무엇을 보았는지 느끼는 대로 기술해 봅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를 보고, 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사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문단 형식으로 발표가 가능하다.</li> </ul> </li> <li>· 교사의 비지시적, 정서적, 연상적 질문 등으로 개인적 반응을 촉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나누어준 활동지를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직관적 글쓰기를 한다.</li> </ul> </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p>필기도구</p>
1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및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한 글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반응의 다양성을 인정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에 대해 발표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과 다른 의</li> </ul> </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정 리	2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수업 결과물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에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다.</li> <li>- 본시 학습을 통해 본 두 작품을 바라본 시각을 정리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수업 내용과 활동지를 정리한다.</li> </ul>	
	2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차시를 예고</li> <li>-다음 차시 수업내용 예고 및 설명 (다음 수업 내용을 설명, 소집단 수업 진행 예고)</li> <li>-과제 제시 (두 작품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의 글과 내용 조사 및 작품에 대한 배경 조사)</li> <li>-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차시 내용을 숙지</li> <li>-다음 차시 수업 내용 파악</li> <li>-과제 내용 파악</li> <li>-인사</li> </ul>	

<표-6> 2차시 수업계획서

단원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평	차시	2	시간	50분
학습주제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교 감상				
학습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를 통한 작품 감상</li> <li>▪ 소모임 별로 비평 활동</li> </ul>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된 비평가의 글을 바탕으로 토론하여 비평할 수 있다.</li> </ul>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li>2. 앤디워홀의 작품의 배경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li> <li>3. 비평가의 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과 통합하여 서술할 수 있다.</li> <li>4. 판화와 광고의 제작 기법과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li> </ol>				
학습자료 및 준비물	교수 매체	빔 프로젝트			
	교사	수업안, PPT, 참고작품, 학습 활동지			
	학생	선수 과제, 필기도구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습자	
도입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환경 조성</li>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본시 학습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점검, 주의를 환기시킨다.</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시킨다.</li> <li>▪ 전시에 학습한 활동을 배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확인</li> <li>-인사</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한다.</li> <li>▪ 본시 수업내용과 목표 인지한다.</li> </ul>	PPT 자료  유인물 (활동지)

		<p>법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에 학습할 활동지를 배부한다.</li> <li>▪ 본시 수업내용 예고 및 목표를 제시한다.</li> <li>▪ 학습방법을 안내한다.</li> </ul>			
전개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제시</li> <li>▪ 자료를 바탕으로 소집단별 토론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제시</li> <li>▪ 소집단 별 수업진행</li> <li>▪ 사전에 조사한 다양한 정보와 비평가의 글을 바탕으로 토론을 유도한다.</li> <li>- 두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는 어떠한가요?</li> <li>- 두 작품에 대한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떠한가요?</li> <li>- 조사 후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이 있나요?</li> <li>- 유인물에 토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집단별 토론을 한다.</li> <li>- 자신의 조사한 작품의 배경을 설명하고 다른 학생이 조사한 내용을 이해한다.</li> <li>-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해한다.</li> <li>- 유인물에 토론 사실을 적어 본다.</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p>필기도구</p>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사실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을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적 의미와 해석과 함께 자신이 1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된 내용을 새롭게 이해하고 비평문을 작성한</li> </ul>	<p>PPT 자료</p>

	<p>바탕으로 비평문 작성</p>	<p>시에 내린 작품에 대한 인상을 더하여 새로운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나요?</li> <li>- 토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li> <li>- 처음에 이 작품들을 보았을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li> <li>-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li> <li>-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새로운 비평문을 작성해 봅시다.</li> </ul>	<p>다.</p>	<p>유인물 (활동지)</p> <p>필기도구</p>
10 분	<p>· 본시 · 학 습 · 정 리 · 및 새 · 로 운 · 작 품 · 제 시</p>	<p>· 두 작품의 의미를 설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작품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정리하여 설명하여 준다.</li> <li>- 작품이 제작된 기법(판화, 프린트기법 등)과 제작 순서를 도판과 함께 설명한다.</li> </ul>	<p>·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정리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li> <li>- 제작 기법을 이해한다.</li> <li>- 새로운 의문점을 질문할 수 있다.</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예시 작품을 제시한다.</li> <li>-광고에 예술 작품을 접목한 예 또는 작품속에 예술 작품을 접목한 예, 위홀의 다른 작품을 제시한다.</li> <li>-제시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예시 작품을 비교 감상해 본다.</li> </ul>	
정리	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수업 결과물 정리</li> <li>· 다음 차시 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에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다.</li> <li>- 본시 학습을 통해 본 두 작품을 바라본 시각을 정리 한다.</li> <li>· 다음 차시를 예고</li> <li>-다음 차시 수업내용 예고 및 설명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예고, 다양한 재료 예로 제시)</li> <li>-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 수업 내용과 활동지를 정리한다.</li> <li>· 다음 차시 내용을 숙지</li> <li>-다음 차시 수업 내용 파악</li> <li>-인사</li> </ul>	

<표-7> 3차시 수업계획서

단원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평	차시	3	시간	50분
학습주제	앞서 감상한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해 본다.				
학습형태	▪ 개인별 새로운 작품제작				
학습내용	▪ 1,2차시 때 학습한 광고와 예술작품의 비평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 할 수 있다. 2. 광고 또는 예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3. 새로운 상상을 통하여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다. 4. 새로운 상상을 통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준비물	교수매체	빔 프로젝트			
	교사	수업안, PPT, 참고작품, 학습 활동지			
	학생	미술재료, 필기도구, 연필, 지우개			

단계	시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습자	
도입	3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환경 조성</li> <li>▪ 전시 학습 상기</li> <li>▪ 본시 학습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점검, 주의 환기시킨다.</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시킨다.</li> <li>▪ 전시에 학습한 활동을 배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출석확인</li> <li>-인사</li> <li>▪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한다.</li> <li>▪ 본시 수업내용과 목표 인지한다.</li> </ul>	PPT 자료  유인물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시에 학습할 활동지를 배부한다.</li> <li>· 본시 수업내용 예고 및 목표를 제시한다.</li> <li>· 학습방법을 안내한다.</li> </ul>			
전개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확인</li> <li>· 스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유도한다.</li> <li>· 자유롭게 재료 기법을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연필,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색종이, 잡지 등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제작 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주제를 선정한다.</li> <li>·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p>연필, 지우개</p>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선택 및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 스케치를 기반으로 재료와 기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순회하면서 작품 제작의 어려운 점과 창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 작품이 완성될 수 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주제에 맞게 표현한다.</li> <li>· 이야기를 담아 표현한다.</li> <li>· 작품이 미완성</li> </ul>	<p>PPT 자료</p> <p>유인물 (활동지)</p> <p>미술제작 도구</p>

			도록 지도한다.	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분	· 작품 발표	· 제작한 작품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작품에 대한 칭찬을 한다. -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도와 이야기를 발표해 봅시다.	· 제작된 작품을 발표한다.		PPT 자료  유인물 (활동지)  필기도구
정리	2 분	· 본시 수업 결과물 정리  · 주변 정리	· 본시에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다.  · 1, 2, 3차에 걸쳐 제작한 활동지를 자신의 포트폴리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주변 정리를 지도한다.  -인사	· 본시 수업 내용과 활동지를 정리한다.  · 주변을 정리한다.  -인사	유인물 (활동지)  필기도구

4) 유인물

<표-8> 1차시 활동지

1. 광고의 이미지와 앤디워홀의 '코카콜라' 비평		
제	학년 반	이름 :
<p>※ 작품을 감상 시 생각한 모든 것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동지에 적어 봅시다.</p>		
의문 사항		
교사 코멘트		









#### 4. 대화중심 미술비평 수업 분석 및 유의점

본 미술비평 모형은 단순한 미술비평활동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에 입각한 새로운 비평 활동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첫 단계인 직관적 읽기 단계를 통해 탐구심을 유발하고, 여러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에서 학생은 지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대화와 토론 단계부터는 시각적 기호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조사하면서 새로운 시각적 산물들에 대한 이해와 비판능력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었다. 학습자의 모든 학습의 내용들은 자신의 워크시트와 포트폴리오에 기록함으로써 향후에 자신의 견해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새로운 이미지 탄생(표현)단계는 이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접근을 근간에 두면서, 대화를 통한 비평교육을 통해 시각적 언어에 대한 분석 및 비판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미술작품에 대한 시각적 선이해에 대한 반응 지평융합,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측면이 이 수업방식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수업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전체적인 수업과정이 방대하고,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정이 많다 보니 현재 수업시수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점이 있다. 두 번째로, 교사가 발문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다양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적절한 발문을 해야

만, 발문을 통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내포하지 못한 형식적인 발문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VI. 결론

뒤상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이다.”라고 표현했다. 관객과 작품 사이에서의 교육, 가치판단의 근거, 문화 등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모두 얽혀 조화를 이룰 때 그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술비평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작품의 감상이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기타 배경이나 선지식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술 비평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 중심 교수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미술비평의 형태 또한 변화되어 왔다. 이에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와 가다머의 해석학적 미술비평을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화 중심 교수방법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화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화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대화법을 기반으로 한 미술비평수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비평적 탐구와 해석학적 미술비평을 기반으로 한, 미술비평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대화 중심 미술비평 수업 방안에 대해 연구하면서, 대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비평 수업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반영하는 미술비평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들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활동까지 이룰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직관적 읽기 단계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대화와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의 견해를 공유하였으며, 스스로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비평을 연구함으로써

써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해결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스스로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작품과의 관계만이 아닌, 타인과 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극대화 할 수 있다. 대화 중심 미술 비평 과정과 함께 학습자는 이때까지 수행해 왔던 것들을 실제 글로 정리해 봄으로써, 지식과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새로운 작품의 제작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수업모형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교육사정상 수업시수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발문 과정에서 인식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발문이 아닌 피상적인 형태의 발문은 오히려 학습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유의점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자칫 피상적일 수 있는 미술비평수업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학습자와 작품을 이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미술비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지식습득, 또는 해석에 한정된 미술비평이 아닌, 학습자 스스로 미술비평과 스스로의 관점 또는 배경을 접목하여 새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데에서 대화를 통한 미술비평수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원화된 포스트모던시대에 학생들에게 비평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미술비평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미술작품과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시각 이미지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스스로의 분석하고 탐구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고가 향

상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 미술비평교육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김육동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민음사
- 김종문 등 (1998),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미학대계간행회 (2007),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번스타인, 정순복 옮김 (1995), 『존 듀이 철학 입문』, 예전사
- 박정호 외 (1996). 『현대철학의 흐름』, 도서출판 동녘
- 박휘락 (2007),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주)시공사
- 테리 바렛 지음, 이태호 옮김 (2004), 『미술비평:그림 읽는 즐거움』, 아트  
북스
- 톰 앤더슨, 멜로디 밀브란트 (2007), 『삶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 해럴드 오즈본, 한국미술연구소역(2001). 『옥스퍼드 20세기 미술사전』,  
시공사

### <정기 간행물>

- 고은실 (2008). 「현대 한국 미술비평교육의 내용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2집
- 김창식 (1999).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양식의 문제점 고찰」. 미술교육  
논총 제7집
- 김향미 (1998). 「미술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제9  
집.

- 박민정 (2005).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교육과정 논의의 쟁점」, 교육과정연구, 23권 4호.
- 신백경 (2008). 「초등 미술교과에서 해석학적 접근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감상 지도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22집 1호
- 이은적 (2001). 「미술 비평과 감상 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12-1
- 이재영 (2009), 「탐구중심 미술교육: 비평적 사고와 비평적 교수법」, 미술과교육 Vol.10-2
- 조지 계희건, 최옥희 율김 (2001), 「미술비평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교육 Vol.2,
- 홍기태 (1999), 「중등학교에서의 미술감상과 비평」, 미술교육논총 제7집

#### <논 문>

- 강성원 (2008). 「미술의 개념 확장에 의한 미술교육의 실제적 접근과 교육과정 탐색」, 성균관대 대학원
- 김종문, 강희명 (1999). 「도덕과의 열린교육을 위한 대화학습과 수업실제」,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 김지연 (2004). 「펠드먼의 미술비평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김희영 (2008),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영주 (2008). 「미술비평을 통한 시각문화미술교육」,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대한 (2006)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대화를 활용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이정은 (2003). 「해석학적 대화 학습을 통한 현대 미술의 감상교육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외국 참고 문헌>

Bauersfeld, H. (1995). The structuring of the structures: Development and function of mathematizing as a social practice. Steffe L. p. & Gale. J. Constructivism in Educ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A Perigee Book

George Geahigan and Wolff, (1997) "Art Criticism and Art Edu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Garber, E. (1995). Teaching art in the context of culture: A study in the borderlands. Studies in Art Education: A Journal of Issues and Research, 36(4)

H-G. Gadamer, Philosophical Hermeneutics, Translated by D.E.Linge (197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John Ruskin, The Elements of Drawing(1857[1971]), Dover

# Abstract

**A research on conversation-based teaching methods to improve an art criticism ability**

Park, Yun Hee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begun to make art criticism better fit with current paradigm, since The change of periodical paradigm made art criticism change its role.

Fixed value has been vanished when paradigm changes, and also while getting and making new information, criticism toward visible image which can be seen in life should be getting better. To make art criticism better, I have set a talk-based class as a measure, and discuss about this class to make art criticism class better.

First, to know about the changes in art criticism paradigm, we have to know about the changes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and also dictionary meaning of art criticism. And found out art critics' role and idea based on art critics' function.

To make art criticism ability better which is suitable to the post-modernism based point of view, I have studied Geahigan's

critical inquiry based on John Dewey's critical inquiry, and hermeneutical point of view to know more about the role of teacher in the art criticism class.

Finally, to validate formally discussed art criticism class, planned art criticism process to recognize matters and find detailed plan for art criticism class based on conversation